

모든 야구팬 여러분께 우승의 영광을 바칩니다

2013년 마지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팬 여러분의 사랑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습과 도전을 거듭하며
 땀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모든 선수 여러분,
 때로는 환호로 때로는 눈물로
 선수들과 함께 달려 주신 모든 야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2013 한국시리즈 우승!

